

# V 나발도







---

# V. 나발도

---



##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 가. 사회·지리적 배경

#### 1) 주요 항과의 거리

나발도의 나발도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18.4km 떨어져 있고, 인근 화태도의 월전항까지 0.6km 떨어져 있으며, 대두라도항까지는 0.86km 떨어져 있다.



나발도선착장 대합실



나발도 전경

## 2) 인구현황과 토지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나발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20세대 36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중 남자는 22명, 여자는 14명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3.0km이며, 면적은 0.12km<sup>2</sup>이다.

인구현황(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나발도	20	36	22	14

## 3) 공공기관

### (1) 나발경찰출장소

나발도에 경찰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1980년 8월 1일이었다. 다음 해인 1981년 두라리 73-1번지에 1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출장소를 이전하였다가 1992년 5월에 폐소되었다.

- 
- 1980. 08. 01. 나발경찰출장소 설치
  - 1981. 두라리 발 73-1번지에 벽돌슬라브 10평 건물 신축 이전
  - 1992. 05. 30. 나발경찰출장소 폐소

## 4) 교육기관

### (1) 화태초등학교 나발분교장

나발도에는 1968년 3월 7일 두라리 85번지에 화태국민학교 나발분교장이 개교하였다. 학생 수 감소로 1994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 5) 의료기관

나발도에는 보건지소 등의 의료기관이 없다.



## 나. 지형과 환경<sup>1)</sup>

### 1) 지형

나발도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북쪽 사면과 평탄지를 중심으로 취락과 경작지가 분포한다. 경사가 급한 남쪽 해안은 단조로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 해안은 만입부에 소규모 자갈해안이 나타난다.



북쪽 자갈해안



남쪽 암석해안

### 2) 지질

인근의 금오도와 비슷하게 중생대 백악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토양

구릉지를 중심으로 안산암질 응회암 풍화토가 잔적되어

1) About전남의섬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한다.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그리고 산록의 하부와 곡두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봉적층을 이루고, 평지를 이루는 중앙부에 충적토가 발달한다.

#### 4) 기후

인근의 대두라도 등과 비슷하다.

#### 5) 주변 해역조류

인근의 대두라도 등과 비슷하다.

#### 6) 주변 환경

최고 지점 65m의 산지를 중심으로 남쪽 해안은 급사면이며, 북서해안 쪽으로는 완사면을 이룬다.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고 북서쪽과 북동쪽에 만입이 발달해 있다. 연근해 일대에는 우럭·광어·농어 등과 자연산 전복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락은 주로 북서쪽 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력은 공급되나 주민들의 식수는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 7) 주변 도서

동쪽으로 소횡간도, 북동쪽으로 대횡간도, 북쪽으로 화태도, 서쪽으로 대두라도가 있다. 산세가 그다지 높지 않다.



## 다. 식생과 생태

### 1) 나발도의 생태자원

나발도는 남해안의 다른 섬들에 비해 자생 동백나무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남해안 같은 위도상의 섬 대부분이 송악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 소나무의 생태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나발도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개체수가 드물게 보이는 것이 인근 섬들과 차이점이다. 현재 섬의 정상부에서부터 5부 능선 이상은 소나무가 생태우점하고 있으며 아까시나무가 없다. 이러한 식생의 특성은 인간의 간섭과 자연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으로 추정된다. 아까시나무가 없는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우리 나무 수탈이나 무분별한 개발에서 비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발도는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감탕나무, 조록나무, 사철나무 등과 해안가와 산속 모두에서 돈나무의 풍부한 분포가 관찰된다. 이는 주변 섬과 다른 나발도가 가진 독특한 생태자원의 분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곰솔군락

### 2) 나발도의 식생

나발도의 식생은 주변 식생과 특이점들이 많아 남해안의 생태계 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남해안의 기후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발도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발도가 인근 같은 위도상의 섬들에 비해 동백의 개체수가 적은 것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식물 종의 적응력과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마을 오른쪽 해안가 주변 철탑 아래는 털머위들이 제법 군락을 이루고 있다. 철탑을 세우면서 파헤친 후 주변을 정리하면서 지피식물로 털머위를 식재했는지, 자생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철탑 아래 제법 넓은 초지에 잎이 다 떨어진 제법 큰 교목이 한그루 서 있고 그 아래 털머위는 잎이 모두 하얗다. 무슨 병인지, 변이를 일으킨 것인지를 관찰하기 위해 자세히 살폈다. 털머위 잎에 뭔가가 가득 덮여 있다. 가마우지나 갈매기 똥이다. 큰 나무를 보니 자귀나무이다. 가마우지나 갈매기가 자귀나무 열매 때문에 자리를 틀고 앉았는지 자귀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가마우지나 갈매기의 배설물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들은 바닷가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발도는 선착장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가는 오른쪽과 마을을 지나 섬의 북쪽 끝 등성이로 가는 길목 바닷가에도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다. 주요 수종으로는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감탕나무, 조록나무 등이 있다. 대부분 남해안의 섬지역에서 이런 숲은 동백이 주종인 것과 많은 대조를 이룬다. 마을 오른쪽으로 돌아가 몽돌밭이 있는 지역의 해안가 갯바위에는 해국이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다. 길가 양지바른 곳이나 언덕에는 쑥, 광대나물, 별꽃, 양지꽃 등이 봄을 시샘하듯 빼꼼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러한 식생은 나발도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토종 식물종의 생장에 적합함을 나타낸다. 쇠고비는 봄을 한껏 머금은 모습으로 유독 광채가 나며 반질반질한 새잎이 기름이라도 발라놓은 듯 윤기를 더하며 반짝인다.

바닷가 해안길 주변이나 산속 소나무 아래서도 돈나무와 사스레피가 지천이다. 돈나무는 지난해의 열매 꼬투리가 아직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지난해 결실의 풍성함을 보여준다.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구실잣밤나무가 겨울에도 푸른 활기를 불어넣어 온통 푸른 생태계를 보여준다.



털머위

### 3) 나발도의 식물상

나발도의 식물상은 인근의 섬들과 다른 특징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감탕나무, 조록나무, 돈나무, 사스레피나무와 같은 수종들이 있다. 이들은 나발도의 숲이 사철 푸르고 울창한 숲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특히, 조록나무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식물 중 하나로, 다양한 변종이 있으며,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안가와 산지에서 발견되는 해국, 쑥, 광대나물, 별꽃, 양지꽃 등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나발도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수종이다.



조록나무의 충영



돈나무

조록나무는 조록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중국 동남부 지방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자생한다. 이름은 제주도에서 유래되었다. 제주도 방언으로 자루를 조록이라 부르는데 조록나무가 자루를 담고 있어 조록나무로 불리게 되었다. 또 다른 설은 조록나무의 잎과 줄기에는 조록나무혹진딧물 등 무려 8종류 이상의 해충이 갖가지 모양의 충영을 만드는데 큰 것은 조롱박만하다. 그래서 조롱이 달린 나무 또는 충영이 조롱조롱 달린 나무라고 조롱나무라고 하다가 조록나무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중국에서는 문모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그 어원이 불분명한 이스노키라고 부르며 한자로는 작(柞)이라고 한다. 「柞」은 원래 중국에서는 참나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일본에서 조록나무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로 차용한 것으로 본다.<sup>2)</sup>



앞에 충영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꽃잎이 없이 꽃받침만 있는 붉은 꽃이 3월부터 잎자루와 잎 사이에 뭉쳐 핀다. 열매는 원형이며, 다 익으면 검정색으로 익고, 나무껍질은 회색이고 오래되면 벗어진다. 참고로 조록나무의 꽃말은 변하기 쉬운 사랑이다.

바람에 민감하여 주풍방향의 반대편으로 수관이 기울어 자란다. 뿌리는 잘 썩지 않아 수백 년 된 뿌리는 갖가지 형상을 하고 있다.

목재는 매우 단단하여 못도 잘 들어가지 않아서 가공, 건조는 어렵다. 일반용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독특한 용도가 있고 마루판, 마루기둥, 기구, 악기 등에 이용하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단단한 나무로만 만든다는 최고급 머리빗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록나무로 만든 목검은 스누케(スヌケ)로 불리며 최고급 목검 중 하나다.

나무껍질과 잎의 재는 도자기, 특히 지방에서 나는 도자기에 염료로 쓰인다. 새잎이 나오는 무렵이면 잎의 중앙맥 부근에 진딧물의 기생에 의한 크고 작은 ‘충영’이 많이 생긴다. 이를 나누면 몇 마리에서 수십 마리의 진딧물 유충이 보인다. 이 충영을 오배자라고도 한다. 가을쯤에는 흑이 산란 당초보다 다섯 배나 커진다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5월 하순에 잎 뒤의 표측한 부분을 통해 성충이 날아오른다. 잎이나 작은 가지에는 메추리알 크기에서 때로는 거의 달걀만한 벌레 흑이 흔히 붙어있다. 한 나무에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씩 생긴다. 처음에는 초록색이나 차츰 갈색으로 되어 언뜻 보아서는 나무에 밤알이 달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속에는 붉나무에서 보이는 오배자 충이 들어있다. 벌레가 자라 탈출해 버리면 속이 비어 파리모양이 되는데 입으로 불어 악기처럼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다.<sup>3)</sup>

한편 돈나무는 섬나무, 갯뽕나무, 뽕나무, 만리향, 음나무, 섬염나무, 해동화, 발독산, 운남해동, 다화해동화, 칠리향, 토베라 등 지역과 쓰임에 의해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전라남도, 경상남도 섬지역, 제주도 바닷가)·일본·타이완·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대표 이름이 웬지 돈과 관련 있을 거 같지만 실제로는 뽕+나무(제주도 말로 뽕나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꽃향기는 진하고 향기로우나,

2) 출처: <https://tnknam.tistory.com>

3) 출처: [https://treeworld.co.kr\(수목도감\)](https://treeworld.co.kr(수목도감))

꽃이 지고 난 뒤 열리는 열매에서 끈끈하고 달콤한 액체가 분비된다. 이를 먹기 위해 파리와 벌 등 곤충들이 많이 모여 똥나무라고 부르다가 돈나무가 되었다고도 한다.

줄기 밑동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모여 나서 전체적인 나무 모양은 반원형을 이룬다. 나무껍질은 흑갈색이며, 뿌리는 껍질에서 냄새가 난다.

민간에서 증풍이나 류머티스성,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등에 잎을 달여 복용하고 있다.

꽃은 5~6월에 새로운 가지 끝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며, 향기가 진하고 꿀이 많다. 열매는 둥글고 10월에 3개로 갈라져 점액과 함께 붉은 종자가 나온다.

목재는 물기에 강하여 어구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잎은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상록수이면서 꽃과 잎, 열매가 모두 아름다워서 도심지 공원이나 해안의 방풍림으로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귀신이 매우 무서워한다고 해서 남쪽 섬 지역에서는 이 나무를 액을 쫓는 음나무 역할을 한다고 '섬음나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이 나무의 가지를 입춘 때 잘라 문쪽에 붙여서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설화 동방삭 이야기에도 이 나무가 귀신이 무서워하는 나무로 등장한다.

#### 4) 육상동물

나발도의 육상동물은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 5) 해양생물

나발도의 해양생물은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 6)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1년 12월 23일 14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오도 지구에 속한다.



## 2. 역사와 문화

### 가. 연혁

나발도는 1396년(태조 5) 순천부에 예속되었다. 1896년 돌산군이 설치되면서 금오면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수군 남면에 속하였다. 이웃하고 있는 두라도와 법정리로 통합되면서 두라도의 ‘두(斗) 자’와 나발도의 ‘나(羅) 자’를 따서 두라리로 하였다. 1949년 여수시 승격으로 여천군 남면에 속하였다가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 두라리에 속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호남연해형편도

### 나. 마을유래

#### 1) 나발마을

나발도는 섬의 생김새가 나팔과 같이 생겼다하여 나발도(羅發島)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1590년경 임진왜란을 전후로 장씨가 처음 입도하였고, 1740년경 여수에서 살던 밀양박씨 성율이 처음으로 입주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후 1760년경 나주 임씨와 의령남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나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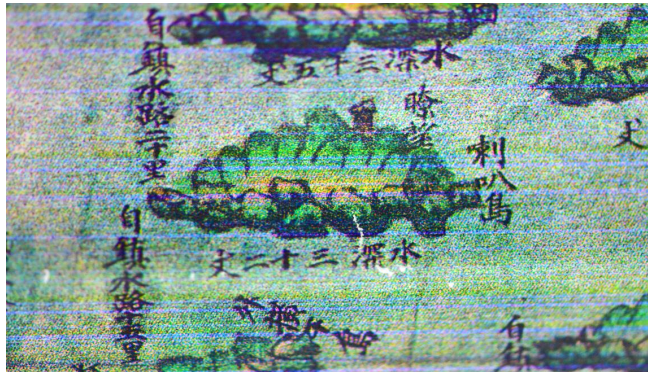
나발마을(2015년)

##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 1) 나발도요망(羅發島瞭望)<sup>4)</sup>

남면 횡간리 130-1번지의 북위 34° 33′ 16.38″ 동경 127° 44′ 25.47″ 해발 65.0m인 당몰랑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이 작아 산세가 높지 않다. 동쪽으로 소횡간도, 북동쪽으로 대횡간도, 북쪽으로 화태도, 서쪽으로 대두라도가 있다. 산정에서는 주변의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며, 북쪽의 돌산도의 천왕산 아래로 요망을 관장하였던 방답진이 있다.

나발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인 「순천방답진지도」에 해중의 ‘나팔도(喇叭島)’의 지명 표시가 있고, 동쪽으로 치우친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산 정상부에는 마을 당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목의 당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당집 주변이 요망이 위치한 장소로 추정된다. 산정 주변은 밭으로 사용한 흔적인 경계석과 석재들로 흩어져 있으나, 요망의 유적인지는 불분명하다. 당집의 동남쪽으로 지름 2.0m 이내의 원형으로 된 구조물이 5기가 발견되었으나, 연조시설인지는 이후 조사가 필요하다.



순천방답진지도 나팔도요망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방답진 5.4km, 화태도요망 1.2km, 개도요망 7.8km, 대두라도요망 0.9km, 대횡간도요망 2.0km, 자봉도요망 5.6km, 월호도요망 2.3km이다.

요망의 자리는 마을 뒷산이며, 농로를 따라갈 수 있으나 농지는 휴경상태로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4)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연조 추정 원형축조물



연대추정지 석축

## 라. 나발도의 어제와 오늘

### 1) 남면의 또 다른 안섬 나발도

나발도는 남면의 섬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화태도와 대두라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대횡간도, 금오도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니 자연적인 피항지가 되었다. 주변 섬 중에서 태풍이나 북서풍뿐 아니라 셋바람(동풍)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창이 나발도에만 있었다. 그래서 석(태풍이 불면 배를 대는 선창)이 좋은 섬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인근의 대두라도나 대횡간도뿐만 아니라 금오도나 안도, 연도에서도 배들이 피항을 왔다. 섬이 작다보니 배석도 크지 않지만 많은 배가 몰리다 보니 배끼리 부딪혀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의 섬사람들은 나발도를 ‘안섬’이라고도 불렀다. 참고로 안도는 섬 안에 두멍안이 있어서 안섬이라고 불렀다.

### 3. 섬 생활의 변천

나발도는 돌산 군내항에서 한려3호가 운항을 하고 있다. 군내항에서 출발한 한려3호는 하루에 5항차를 운항하지만, 나발도에는 4회만 닿는다. 군내-송도-월호-독정-대두라-나발-월전-횡간-군내를 순환한다. 항차에 따라 순방향과 역방향의 노선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 주차가 되어 있는 항구에서 배가 오는 항차를 확인하고 탑승해야 한다. 한려3호가 돌산 군내항에서 출발하지만, 화태대교가 개통한 이후 화태도 월전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가깝고 편리해서 주민들은 월전항을 주로 이용한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개별 어선이 있다. 인근의 섬이나 화태도에 갈 때는 여객선보다는 자신의 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가. 나발도의 생업

나발도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살았지만, 현재는 전적으로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논농사가 없으며,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밭에서는 주로 고구마, 보리, 콩 등을 경작하며, 이는 나발도의 주요 특산물이다.

##### 1) 농업

나발도는 다른 인근 섬에 비해 밭을 일굴 수 있는 땅이 비좁았다. 밭떼기 조금 있는 것으로 일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발도 주민들은 모두가 반농반어를 겸한다. 1960~70년대는 어디라도 그랬듯이 겨울에는 보리를 심었고, 여름에는 고구마를 심었다. 고구마는 대부분 겨울에 식량으로 자급자족할 정도만 재배하였다. 남은 것을 조금씩 절간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다. 밭이 많은 집에서조차 봐야 70여 가마의 절간을 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모두 묵전이 되었다.

지금은 밭이라고 해봐야 마을 안쪽 텃밭에 있는 채마밭이 고작이다. 겨우네 먹을 배추, 갓, 양파 등이 겨울을 나느라 겨우 견디고 있다. 나발도는 워낙 작은 섬이라 논농사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채마밭



목전이 된 밭

## 2) 어업

섬 바로 앞은 온통 가두리 양식장으로 주로 우럭, 감성돔, 돔을 양식한다. 가두리 양식장을 하기 전에는 주로 지주식 김양식을 하였다. 김양식을 할 때는 김을 모아서 여수상회에 넘겼다. 상회에 넘겨서 겨우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바꿔오는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나밭도에서 가두리 양식장은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 중 하나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두리 양식장은 섬사람들이 섬을 떠나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많은 빚을 내어서 가두리를 설치해서 그 빚을 청산할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가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 가두리는 수온이 통상 8도 내외가 좋은데 찬물이 내려오면 가두리 고기들이 죽어 버린다. 가장 추울 때는 4도까지 내려가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도 있었다.

가두리가 한창 호황일 때 도회지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섬으로 들어와 가두리를 해보려고 고향으로 귀향했다가 말아 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뭘라고 이걸 시작했으까? 지금은 후회 막급이여. 다 말아 무것썸. (묵었어)”*

*“사료 비싸지, 판로는 없지, 정부가 다 수입해서 단가 떨어지는데 태풍이 한 번씩 와서 괴롭히기 일쑤다. 죽는 건 농민과 어민 뿐이여. 정부 쌀 가지고 온다고 농민들은 데모하고 그러잖여. 그래도 섬사람들이 순해. 어민들은 다 죽게 돼도 데모 한 번 안 하잖아.”*



가두리양식장



어장주 어선

가두리 외에 통발 작업을 하는 집도 3집 있다. 통발에는 문어, 게, 소라 등을 잡는데 3~4일 것을 모아서 군내리 위판장으로 가서 판다. 별도 어로작업으로 오징어나 도다리 등을 잡기도 한다.

주로 어장주들은 개인소유의 배를 타고 양식장을 관리한다. 고기밥은 주로 생멸치와 정어리를 주는데 먹다가 흘러나온 정어리를 먹으러 고기들이 가두리 앞으로 모여들어 주변 방파제에 낚시꾼들이 몰린다. 외국인들이 핸드카트로 들고 가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에 뿌릴 고기밥이다. 정어리 얼린 판을 10개 정도 싣고 가는데 그게 하루 양이다. 가을에는 날마다 밥을 주지만 겨울에는 보통 3~4일에 1번 밥을 준다고 한다.

마을 앞 방파제에 서있는 배들에도 고기밥들이 잔뜩 쌓여있다. 냉동실에 얼려서 사각으로 큰 벽돌같이 만들어서 집집마다 고기밥을 준비한 것이다. 다 키운 물고기는 횃집 트럭이 차도선을 타고 직접 양식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옮겨 담아서 유통과정에서 최대한의 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한다.

멸치잡이는 매일 나가 잡긴 하나 물살이 센 사리 때 주로 많이 잡힌다. 요즘은 멸치의 출현 시기가 대중없어서 주로 5월에서 11월까지 작업한다. 소형 멸치잡이를 하는 가구도 있다. 소형 멸치잡이 배들이 작업을 하고 들어와 선착장에 정박하면 작업이 시작된다. 오늘 작업한 어획물에서 큰 해파리를 버리고 전어와 멸치 등을 골라낸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도

멸치 판에서는 잡어 취급을 받는다. 잡아 온 멸치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싱싱할 때 삶아 말려야 하기 때문에 급히 멸막으로 옮긴다. 끓는 가마에 멸치를 붓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까지 소금 넣고 5분여를 삶아 채로 담아낸다. 멸치 삶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지만, 어민들은 그 냄새에 행복을 느낀다.

삶은 멸치는 햇볕에 말린 후에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쳐 ‘미향여수 멸치’ 박스에 담아 최종 상품으로 내놓는다. 그 후엔 수협 공판장 경매를 거쳐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나발도 주민들은 낚시를 통해서도 수입을 얻고 있다. 예전에는 나발도에는 대두라도나 횡간도, 화태도처럼 낚시꾼들이 많지 않았다. 유독 나발도에 낚시하는 사람이 적었던 이유는 나발도의 바다 바닥에 돌 등이 많아서 낚싯바늘이 자꾸 돌에 걸려서 짧은 시간에 낚싯바늘을 용왕님께 헌수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방파제를 키워서 나발도 방파제 주변에 대물이 잘 나오기로 유명하다. 화태도 방향의 작은 선착장은 조류 소통이 매우 좋다. 그러나 나발도 주변은 낚시 포인트가 많아 낚시꾼들이 어촌계의 규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때는 주민들이 낚시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나발도와 화태도 사이



## 나. 나발도의 생활문화공간



마을회관



해수담수화시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섬지역에는 교회가 들어와 있다. 하지만 나발도에는 사람이 너무 적게 살다보니 교회가 없다. 나발도 주민 중에서 교인들은 일요일마다 건너편 월전교회에 배를 타고 가는데 교통불편 때문에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회 등은 참석하기 어렵다.

나발도는 한때 40여 가구가 살았지만 2024년 1월 현재 실제 거주하는 가구는 15호 정도다. 이중 할머니만 살아계시는 집이 3가구이다. 섬마을치고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살아계시는 편이다. 마을 이장(현 41세)은 섬에서 상주하지 않고 시내 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섬에 상주하는 부모님이 접수해서 전달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한다.

마을에 들어섰지만 마을주민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핸드카트(일명 구루마)에 네모반듯한 벽돌 같은 것을 잔뜩 싣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일행 중 한 사람이 뛰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바로 앞 장독 위에서 쳐다보다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역할을 설명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더니 이내 좀 수그러들긴 한다. 조금 지나자 옛날 학교가 있던 공터 앞 이장집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든다. 사진을 찍는데 화를 내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 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여. 불법체류자라서 사진 찍으면 고발할까 싶어서”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지만 사실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데 오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힘든 일은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말을 붙이는 것도 매우 싫어한다. 이들이 말을 좀 하게 되면 좀 더 일이 수월한 육지 등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들이 우리 말을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섬이 워낙 작아서 1시간 정도면 완전히 돌아볼 수 있다. 그런 섬을 3시간 정도 돌아다니니 골목골목 하나도 빠지 않고 마을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질 수 있었다. 이장댁 아래 바닷가 선착장 옆으로 넓은 시멘트 마당이 있다. 약간 비스듬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오봉래 씨<sup>5)</sup>가 ‘배 연애하는 장소’라고 한다. 여기가 약간 물 빠짐이 완만한 지역이라 밀물 때 올라온 물고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어 있다. 물이 빠지자 이것을 놓칠세라 고양이들이 사체를 노리고 다가가고 있다. 요즘 시골에는 어디를 가나 고양이 천국이다. 마을 지붕 위에도, 들에도, 바닷가에도, 특히 가두리 양식장 주변까지도 고양이들이 노리고 있다.

바닷가나 마을 길 가장자리에 그물 꾸러미들이 잔뜩 쌓여있다. 버릴 거냐고 여쭙 보니 가두리에 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걷어냈냐고 물었더니 칠을 먹일 거란다.

“고기들이 잘 보이라고(혹은 보이지 말라고) 칠을 먹이는가 봐요?”

“아니요. 이게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면 짝이나(굴이나 따개비 등) 파래 등이 붙어서 줄이 무거워 가라앉기 때문에 짝이 붙지 말라고 칠을 해야 해요.”

나발도에도 한때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장댁 앞 공터가 학교 터다. 마을어르신들에게 학교가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졌는지 물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 여수교육청 폐교 찾기도 나발분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초대 분교장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분교장은 1978년 3월부터 1980년 3월까지 근무했던

5) 오봉래(1945년생). 나발도 본토박이이며, 현재 마을 노인회장이다.

‘김태영’ 선생님이로 필자<sup>6)</sup>의 초등학교 은사이시다. 나발분교가 폐교된 이후엔 화태도로 통학선을 타고 학교를 다녔다. 정확히 통학비를 얼마를 주고, 어떻게(무엇으로) 지불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선착장에서 내려서 마을로 진입하면 보이는 첫 번째 집은 정미소였다. 임동관 어르신<sup>7)</sup>의 집으로 정미소가 문을 닫은 지는 10여 년 되었다고 한다. 집안에 화초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화분에 정갈하게 담겨있다. 꽃잔디가 모두 꽃을 피우는 계절이면 온통 분홍으로 물들 것 같다. 정미소로 사용했던 건물은 이제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역시 주인의 매시라운 손끝이 보인다. 많은 농기구와 잡동사니들이 질서 정연하게 전시장같이 놓여있다.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창고를 개방해서 섬살이를 보여주는 장소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길거리나 좀 한적한 넓은 공지가 있는 도로 등에는 고무통을 몇 개씩 텐트로 입구를 단단히 동여매어 놓았는데 젓갈 통이다. 이렇게 젓갈을 길거리에 놓아두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을이다.

길거리에 유리로 만든 진열장이 집집마다 있다. 그 속에는 넓은 소쿠리와 통시누대로 만든 발이 들어있다. 큰 자반 김을 뜨는 발장<sup>7)</sup>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주민들에게 여쭈더니 생선 말리는 발이란단다. 워낙 고양이가 많아서 긴 간짓대(장대)에 매달아 올려서 생선을 말린다고 한다. 어느 집을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미역줄거리를 손질하고 계신다. 미역줄거리를 이렇게 갈라서 데친 후에 무쳐먹는다고 한다.

마을에는 샘이 2곳 있다. 하나는 현재 간이상수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샘이고 하나는 메꿔서 없다고 한다.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고장도 자주나고 해서 물 사정이 안 좋다고 집집마다 집숫물을 받는 큰 통들이 즐비하다. 옥상에 파란 물탱크도 집집마다 있는데 물이 여유 있을 때 받아놓고 사용하는 것이다. 물 사정이 안 좋아서 해수담수화시설도 되어 있지만 이것도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서 풍족하게 쓰지는 못한다고 한다.

나발도에서 겨울철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중 마을 청소와 노인당 청소이다. 하루 2시간 정도씩하고 한 달에 290,000원을 받는데 지난해까지는 270,000원이었다가 20,000원이 올랐다고 한다. 마을 청소는 마을사람들이

6) 조미선(1965년생). 현재 여수경영인협회 회장이다.

7) 발장: 김이나 파래 등을 사각으로 만들 때 밑에 대는 판 역할을 하는 물건.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다. 다만 노인당 청소는 11개월을 하는데 하던 사람만 계속한다고 불만이 많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시킨다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

마을회관은 주로 점심을 먹고 모여든다. 우리 일행은 특별히 점심 해결이 안 되어 김밥과 컵라면을 사가지고 갔다. 컵라면을 노인당에서 끓여먹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김치를 내어주신다. 타 지역의 노인당이 남녀 방이 따로 있는 것과 달리 나발도는 1층이 넓어서 남녀 노인들이 같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노인당이 커서 전기요금 등이 많이 나가서 오전에는 안 쓰고 오후에만 쓴다고 하니 무작정 크게만 만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음의 노래 가사는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섬아리랑\_나발도 편으로 노랫말 속에 섬주민의 이야기가 절절히 녹아있다.

---

## 섬 아리랑

### \_나발도편<sup>8)</sup>

둥 둥 둥 나발도라 어허 둥 둥 내 사랑아  
어디 갔다 인자 왔냐  
이리 오랄 때 이리오소  
화태도 갯가길 따라가 보면  
나팔꽃 닮은 나발도 있지  
자식들 키우느라 시작한 양식  
삼킬 수도 뺄 수도 애틍단지  
감성돔 낚시에 번잡하지만  
사람이 귀하니 반갑구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설마 설마 그럴줄이야  
얼싸 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김원자이요  
섬에서 제일 예쁜 춘향이라네  
노인당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텔레비 보면서 즐겁게 살아

---

8) 아티스트: 노을량, 보컬: 노을량, 작곡·작사: 민소윤, 출처: <https://music.bugs.co.kr/track/31582068>

다리가 가끔씩 아프긴 하지만  
할아새 방자랑 행복하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설마 설마 그럴줄이야  
얼싸 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한응엽이요  
7남3녀 중 제일 예뻐지  
다리가 아파서 걱정이지만  
큰 아들 효도에 기운이 나네  
백살까지는 안 바라고  
온 가족 함께 살고 싶네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설마 설마 그럴줄이야  
얼싸 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김오순이요  
나발도 멋쟁이 꽃다운 소녀  
자식을 달라고 소원을 빌어  
1남 1녀를 얻었네  
친구들 옆에서 행복하나  
아들 결혼은 아직일세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설마 설마 그럴줄이야  
얼싸 안고서 내 사랑  
둥 둥 둥 나발도라  
어허 둥둥 내 사랑아  
어디 갔다 인자 왔나  
이리 오랄때 이리오소  
돌담의 이끼처럼 세월의 아리랑  
내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아리랑  
그랬군 그랬어 내 진정 몰랐소  
설마 설마 설마 그럴줄이야  
얼싸 안고서 내 사랑  
내 이름은 배순엽이요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소  
시어머니 시암새 모시고 살았소

## 다. 해운교통

인근의 대두라도와 대횡간도처럼 돌산 군내리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신아해운 소속 한려3호가 하루 4회 운항하고 있다. 예전에는 해동스타호가 운항하였다. 화태도의 월전항이 가깝기 때문에 돌산 군내선착장보다 월전항을 주로 이용한다.

## 라. 나발도 주민들의 생애사

### 1) 나발도 임영도 어르신

#### ■ 작은 섬에서 큰 어른을 만나다.

나발도는 필자<sup>9)</sup>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 익숙한 마을이다. 임영철 어촌계장이 보내준 스리랑카 친구가 운전하는 배를 타고 나발도에 도착했다. 섬에서는 마을 선창으로 배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 지 내다보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풍경이다. 배에서 내려 마을회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텔레비전에서 봤던 연예인이 눈앞에 보인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을 이리 가까이에서 보다니. 유쾌하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마을회관으로 갔다.

마을회관에는 어르신이라는 말보다 누구네 엄마, 누구 삼촌이 더 익숙한 다 아는 얼굴의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준다.



임영도 어르신과 김원자 어르신 부부

*“아! 미경이가 왔냐? 어서 와라. 아버지는 어찌냐?”*

9) 김미경(1967년생, 여) 일과복지연대 소장. 나발도에서 태어나 화태초등학교 나발분교를 졸업하고 여수여자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여수 시내로 유학 나왔다.



다들 손을 잡아 주고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본다. 정말로 정겨운 고향의 품이다. 마을회관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에 나발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방앗간 할아버지를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다.

나발도에서 오랫동안 방앗간을 운영하여서 지금도 방앗간 할아버지로 부르는 임영도 어르신은 집안 내력부터 풀어놓았다. 임영도 어르신의 부친은 여수에서 태어나 여섯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나발도로 이사를 왔다. 일제강점기 당시 나발도에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면 먹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인이 경영하는 마루소라는 회사가 있어 머구리배가 홍합을 잡아 오면 삶아서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현재 마을 주민 김봉래씨의 집이 있는 곳에 회사가 있었다고 한다. 나발도의 일본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여수 시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작은 섬으로 들어와서 터를 잡았던 것이다.

*“나이 먹어 가면서 남의 밑에 살면서 조금씩 벌어서 먹고 산 처지라 불쌍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낳았지.”*

임영도 어르신은 87세로 마을 남자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간다. 그는 5형제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다. 5형제 모두 이곳 나발도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만 남고 모두 돌아가셨다.

임영도 어르신의 아내 김원자 어르신도 화태도 태생으로 마을에서 중매로 결혼했는데 당시 임영도 씨가 23살, 김원자 씨는 20살이었다. 지금은 결혼한 지가 60년이 넘었고, 아버지와 똑같이 슬하에는 5형제를 두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서 객지로 나가고 섬에는 노부부만 살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가 그랬지만 섬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밭농사, 고기잡이를 주로 하였고, 30대부터는 해우(김)양식을 했다.

*“추운 바다에 나가 해우 양식을 했지. 해우 양식도 하고, 해녀 사업도 하고 일본 사람들 수출하는 물건도 여기서 받아서 해 봤지.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통발에서 잡은 장어를 모아 두고 있으면 무역선이 실려와서 일본으로 보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무역업을 한 거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 그 사람들 밥해주고 그러다가 40살이 넘어서 방앗간을 했었어. 횡간리, 화태사람, 두라사람, 개도사람 전부 다*

나한테 왔어. 예전에는 방앗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거든. 당시 내가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먹고 살았지. 방앗간을 해서 보듬시(겨우)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저럭 살아왔지.”

섬에서는 보기 드물게 방앗간을 15년 정도 운영했다. 밭농사 지어서는 보리 방아를 찧고, 참기름, 들기름도 짜고, 고추 빵고, 명절 때는 떡도 하고, 방앗간이 하는 일이 참 많았다. 인근의 논농사를 짓는 곳은 쌀 방아도 찧었지만, 섬 주민의 주업이 농사보다는 바다 양식이나 어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작은 섬 방앗간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방앗간의 역할도 사라졌다.

“이제 밭농사도 많이 안 짓고 해서 섬에 있는 밭들은 묵혀버렸어. 나 밭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농사를 안 짓지. 섬에서 농사 짓는 데가 없어. 금오도 같은데도 한때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도 요즘은 방풍 농사만 지어서 밭이 다들 묵전이 되어 버렸어. 지금 농사짓는 데는 저기 돌산이나 지을까? 그것도 갖이나 마늘, 고추, 양념, 채소 정도나 짓는 것이지.”

섬에 살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농사보다는 사업에 일찍 눈을 떠 다양한 사업을 해보았지만, 산업화로 변해가는 주민의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금은 사업 전성기 시절에 벌여놓은 돈으로 간신히 살아오고 있다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섬을 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사람 중에 섬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섬이 젊어지지. 첫째,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섬이 개발이 되려면 다리가 놓여야 돼. 다리가 놓이고 수도가 들어오고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펜션이라도 짓고 살려고 그러겠지. 사업하려고 들어와도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섬으로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없어. 집을 고치고 시설을 만들면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없어. 첫번째로

## 상수도나 다리를 놔주면 뭐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나발도는 샘이 아주 좋아 가뭄이 들면 인근 섬에서 물을 길러 오기도 했다. 지금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 자주 발생해 사용하기 쉽지 않다. 지금도 고장이 나 있어 식수 사용이 힘들어 여수시에서 생수를 보내준다고 한다. 비록 담수화 시설이 되어 있지만, 자주 고장이 나는 데다 수질도 좋지 않아 나발도 주민들은 생활용수 사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화태도 월전에서 바다 밑으로 그냥 상수도 파이프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인구와 가구 수가 적다고 여수시에서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한다.

나발도는 다른 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도 적게 불고 파도도 낮아서 예로부터 태풍이 불면 근방의 배들이 나발도로 피항을 했다. 그렇게 피항하는 배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다닥다닥 붙여서 정박하여 큰바람이 아니어도 배들끼리 부딪쳐 파손이 되기도 했다 한다.

나발도는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아 가두리 양식을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양식사업이 각광받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으려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한다. 섬에서의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다. 어업을 하는 섬 주민의 가구마다 이주노동자 한 두 명씩은 고용되어 있다. 만나본 외국인 중에는 스리랑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섬에서 가장 젊은 사람으로 이미 섬 주민 일부가 되어 있었다. 꼭 1960~70년대에 여수로 물질하러 왔던 제주도 해녀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시도를 뛰어넘어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남해안 작은 섬까지 찾아와 일하고 있는 세태가 이채롭다.

임영도 어르신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미래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섬에서 살아가는 불편함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며, 또 섬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아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섬을 찾아오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절절하게 전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임영도 어르신은, 어쩌면 섬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토대인 공동체의 발전을 진심으로 꿈꾸고 있다. 작은 섬 나발도에서 지역의 큰 어른을 만나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 4. 나발도의 민속문화

### 가. 나발도의 지명유래



나발도 지명지도

- 오서 <섬> : 대두라도 동쪽에 있는 섬으로 형태가 마치 까마귀같이 생겼음.
- 나발골 <골> : 마을 남쪽에 있는 나발도의 골
- 잔나발골 <골> : 마을 북쪽에 있는 나발도의 골
- 발동골 <지역> : 나발도에 있는 골짜기
- 무녀골 <골> : 화태도 무녀골 맞은편
- 목돌밭 <해안> : 마을 뒤편에 있는 자갈밭
- 끝굴 <굴> : 나발도에 있는 굴
- 오지박[오지바] <바위> : 오지바위
- 당물랑 <고개> : 당집이 있는 물랑

## 나. 나발도의 설화

나발도의 산은 높지 않지만, 산세가 강해서 포수가 총을 쏘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 다. 나발도의 신앙

### 1) 나발도의 당제

남편의 다른 섬에서는 대부분 정월 초하루에서 대보름 사이에 동제를 지냈는데 나발도에서는 음력 삼월 삼짇날 해시(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당제(도제)를 지냈다. 정확히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 전해오는 문헌이 없고, 마을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한다.



당집



당집 내부

나발도에서 당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뒤편의 산 정상에 위치하는데,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입힌 기와지붕의 2칸 건물이다. 한 칸은 제실이고, 한 칸은 부엌인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당집이 무너지자 1970년대 중반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이다. 하당은 물이 빠져서 드러나는 마을 앞 바닷가이며 신체는 용왕이다.

나발도에서는 설을 지낸 후 당주를 선출했다. 당주는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어야 했고, 한 해 동안 집안에 상을 당했다든지 출산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혼이나 부정한 일이 없어야 했다.

당주는 당제를 모시기 일주일 전에 여수 시장에 나가서 제물을 사오는데, 명태와 꽃감, 은행, 대추, 밤 같은 과실과 몇 가지 산채 등이다. 제물 가격은 깎지 않았다. 장을 봐온 다음부터는 더욱 엄격하게 금기를 지키는데 제를 지낼 때까지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소식(小食)을 했다.



당산

당제를 지내는 삼월 삼짇날 오후에 당집 부엌에 나무를 얇게 대패질해서 불이 쉽게 붙도록 메를 지을 준비를 한다.

저녁에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당주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바깥출입을 금했고, 당주는 호롱불을 들고 당집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더러운 것이 있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개가 짖거나, 넘어지면 집으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다시 올라갔다. 제주 선반에 촛불을 켜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로는 메와 대추, 꽃감, 밤, 사과, 배, 감, 마른 명태 등이다. 제주는 술을 올리고 재배를 하고 축문은 읽지 않고 종이를 소지한다. 소지가 끝나면 당집 밖에 있는 메무덤에 밥만 싸서 묻는다.

나발도에서는 삼짇날(음력 3월 3일) 마을 앞 바닷가인 하당에 바닷물이 빠지면 마을주민들이 집집마다 음식을 거하게 준비해 나와 해안에 진설하고, 헌식을 하면서 매구를 치고 놀았다. 나발도에서는 1980년대 초중반까지 당제를 모셨지만, 그 후에는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나발도

## 2) 기독교

나발도에는 교회가 없다.